하정선 회장 "시다림 30년, 주인공은 회원들"

염불공양회, 3월 12일 간담회
1년 200회씩 무주상보시 실천
재난 현장 찾아 구호 물품 전달
27년간 동전 모아 인재불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염불공양회가 새로운 신행공동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3월 12일, 30년간의 활동을 회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범어사에서 봉행된 영결식에서 염불공양 의식을 집전하는 하정선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남편 우판수 불자(오른쪽).

"시다림(장례 염불) 봉사는 밤낮이 없고 계절이 없는 고된 활동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언제든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밤낮없이 헌신한 회원과 그 가족들이며, 오늘의 회향은 이들이 함께 일궈 낸 결실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자비를 실천해 온 'BTN불교TV 염불공양회(이하 염불공양회)'가 30년간의 활동을 회향했다. 하정선 염불공양회장은 3월 1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묵묵히 곁을 내준 이들에게 공덕을 돌리는 헌사로 말문을 열었다.

하 회장은 "염불공양회가 30년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은 스님들의 지지와 부산불교연합회 직원들의 행정적 뒷받침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염불공양회의 30년 궤적은 철저한 무주상보시의 실천이었다. 하 회장은 "불자임에도 미신에 현혹돼 초상집을 꺼리는 사견(邪見)을 깨고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싶었다"며 1994년 3월 10일 염불공양회를 공식 창립했다. 특히 남편 우판수 씨가 BTN불교TV 부산지사 초대 지사장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널리 알리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핵심 활동인 '시다림 봉사'는 1년에 200여 회에 달했다. 이 모든 활동은 가난 탓에 고인의 마지막 길에 염불조차 온전히 올리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철저히 대가 없는 '무주상보시'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현장 투입에 앞서 전문적인 염불 및 집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 장례 의식의 장엄함을 높였고, 죽음에는 예고가 없기에 한겨울 새벽이나 늦은 밤을 가리지 않고 부름이 있으면 유족들에게 달려갔다.

봉사는 빈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02년 태풍 매미가 덮친 부산 가덕도, 2006년 집중호우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등 참혹한 재난 현장을 찾아 일주일씩 머물렀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유가족을 위해 〈천수경〉과 〈금강경〉을 독송하고 이재민 구호 물품을 전하며 상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죽음의 현장에서 목격한 소외된 이웃의 가난은 산 자를 위한 27년의 '인재불사'로 연결됐다. 빈소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유가족을 본 회원들은 매일 〈금강경〉을 사경하며 저금통에 동전을 모았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지난 27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으로 쓰였으며, 장학금이 2억8000여 만원에 이른다.

하정선 회장은 오랜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오래 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이제는 자리를 비워 주어야 또 다른 후배 단체들이 새로운 불사를 이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며 훗날 등장할 신행 공동체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이어 "비록 함께한 회원들과 단체로서의 공식적인 보살행은 마무리하지만, 생사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쌓아 온 숭고한 도반의 연(緣)은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목산당 지은 대종사 1주기 부도탑 제막

3월 17일, 다례재 및 제막식 봉행
가람 수호 · 전법 교화 유덕 기려


문도대표 신광 스님은 지은 대종사 부도탑 앞에서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 화합하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가람 수호와 전법 교화에 평생을 헌신하며 이사(理事)를 두루 겸비한 선지식으로 추앙받았던 전 통도사 주지 목산당 지은 대종사의 유덕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3월 17일 설법전 및 부도원에서 지은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 및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동참해 명안종사(明眼宗師)였던 지은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다례재 직후 새롭게 조성된 부도탑을 제막하며 대종사의 맑은 수행 가풍을 후대에 길이 전할 것을 서원했다.

문도대표 신광 스님은 "부도 비명을 직접 내려 주신 성파 대종사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은사 스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상좌들 간에 화합하고 더욱 치열하게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2월 26일 열반에 든 지은 스님은 노천당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7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6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1969년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또 보광선원에서의 첫 수선 안거를 시작으로 평생 20안거를 성만하는 등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스님의 발자취는 수행처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 교화와 불교 행정으로 폭넓게 이어졌다. 통도사 규정국장을 시작으로 통도사 주지를 역임하며 산중 화합을 이끌었고, 마산포교당·밀양 표충사·울산 백양사 주지 등을 맡아 침체된 지역 불교와 도심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남불교청년회 총재와 경남불교신도회 총재, 밀양불교사원연합회장 등을 지내며 재가불자 조직화에 헌신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 경승실장, 학교법인 해동학원(해동고) 이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 불교TV 이사 등의 중책을 맡아 방송 포교와 교육,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법활동을 펼쳤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부산교구·부산시, '불교문화 활성화' 맞손

3월 16일, 부산시청서 간담회
'위령재–시민축제' 개최 지원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과 부산시가 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매개로 지역 문화 활성화와 호국영령 추모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원장 자관 스님)은 3월 16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봉행 예정인 '영산위령재 및 시민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 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를 부산 시민들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불교 전통의례의 보존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종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22년간 이어 온 '동래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재'를 영산재 의식과 결합해 그 역사적 무게감을 더했다. 과거 외세의 침략에 맞서다 희생된 3500여 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 의식을 장엄한 불교 예술로 재해석해, 지역의 독창적인 호국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박형준 시장은 "불교문화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불교문화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4월 19일 동래구 자비암에서 거행될 이번 축제는 1부 영산위령재와 2부 시민 소통 음악회로 진행된다. 전문 의제단 스님 18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530여 명이 참여해 의식을 시연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건 35주년 금강정사 "시민 쉼터로"

3월 15일, 기념법회 봉행
전통문화체험관 원력 다져



광명 금강정사(주지 가섭 스님)가 창건 35주년을 맞아 그동안 수행과 전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발원했다.〈사진〉

금강정사는 3월 15일 경내서 '창건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주 지홍 스님과 주지 가섭 스님,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해 도량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법회는 가섭 스님과 내빈들의 헌화를 시작으로 창건 원력을 기리고, 조응식 신도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금강정사의 창건 역사를 돌아봤다. 조 신도회장은 "회주 지홍 스님과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도심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도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주 지홍 스님은 "앞으로 금강정사가 광명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시민들의 마음을 쉬어가는 수행 공간이 되도록 함께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불사를 언급하며 "전통문화와 수행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기원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환경·국가유산, 청소년이 지킨다

부산불교환경연대, 3월 14일 '지킴이단' 발대식



생명 평화 운동의 기치를 높여 온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미래 세대와 손잡고 문화유산과 지구 생태계를 수호하는 파수꾼으로 나섰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3월 14일 해운대 반야선원에서 부산국가유산지킴이와 공동으로 '청소년 환경지킴이단 및 청소년 국가유산지킴이단 발대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번 발대식은 불교적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청소년 육성과 국가유산 보호라는 실천적 영역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위촉된 26명의 청소년 대원은 매월 넷째 주 부산 지역 내 주요 국가유산 현장을 직접 순례하며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탄소 중립 실천'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 살림 파수꾼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청소년들이 먼저 일회용품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 유산을 가꾸겠다고 나선 것은 부산의 희망을 보여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일상 속 환경 실천이 참된 수행"

부산여성불자회, EM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3월 18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일상 속 환경 보호로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실천으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부처님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오랜 습관"이라며 "우리가 만든 비누가 물을 정화하듯,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당장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베이킹소다에 천연 레몬 오일을 배합해 EM(유용미생물) 비누를 제작했다.

이날 행사를 제안한 정찬 스님은 "물기 없는 채소나 과일을 살 때 비닐 대신 직접 접은 신문지 봉투나 '지구사랑 가방(현수막 장바구니)'을 사용하면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훈훈한 교류가 이어진다"며 "이러한 일상적 실천을 이웃으로 확산시키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 정신에 근거한 이 시대의 살아 있는 포교"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정 스님 뜻 이어 향기로운 삶 발원"

맑고향기롭게 부산, 법정 스님 16주기 추모회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이 3월 14일 사무국에서 '법정 스님 16주기 추모회'를 봉행하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사진〉

추모회에는 전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범어사 보타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회장과 맑고향기롭게 운영위원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경선 스님은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16년이 흘렀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살아 있다"며 "스님은 늘 '삶이 곧 기도이고 수행'이라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다"고 회고했다.

박수관 회장은 "무소유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신 스님의 가르침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지켜가게 하는 힘이 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님의 뜻을 다시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정법사, 영축불교대학·대학원 입학식

3월 7일, 총 238명…대자유치원도 188명 등록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3월 7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2026 영축불교대학·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교양반 38명, 전공반 46명, 경전반 107명, 대학원반 47명 등 총 238명이 등록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강사진은 주지 광우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이철헌·박성철 교수 등이 맡아 불교 교리와 수행, 문화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강의를 진행한다.

또 올해 상반기 개원을 앞둔 '비로선원'과 연계해 선명상, 차명상, 향명상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법사 부설 대자유치원은 2월 28일 제100회 입학식을 열고 만 3~5세의 총 8개 반, 188명의 원아를 맞았다.

대자유치원은 불교유치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교육기관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